스포츠동아 Weekend

2019년 2월 8·9일 주말판
sportsdonga.com 10판

축구 해외진출 50년사
이강인, 차붐을 넘어라!

▶10면

지금까지 이런 지루한 경기는 없었다. 야구인가, 마라톤인가… "2시간 30분대에 끊어라"

야구, 시간과의 전쟁

지난해 10월 27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3차전은 장장 7시간20분 동안 펼쳐졌다. 전광판(위 사진)에 아로새겨진 스코어 2-2의 균형은 연장 18회말 다저스 맥스 먼시(아래 사진 13번)의 끝내기홈런으로 간신히 깨졌다. 흥미진진한 명승부였지만 '무박 2일'의 경기시간은 옥에 티였다. 꾸준히 경기시간 단축을 추진해온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급기야 한 투수가 최소 세 타자를 상대하도록 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LA | AP뉴시스

불펜야구 대세…평균 경기 3시간 훌쩍
자동 고의4구 도입 등 대책 실효 없어
MLB '투수 최소 3타자 상대'까지 고려
WBSC선 '7이닝제' 스피드업 파격 실험
"팬 우선"…'야구는 9회' 전통 바뀔 수도

우리가 알던 야구가 달라지고 있다.

'타임아웃이 없는 스포츠의 재미'라는 말과 '야구는 9회말 2아웃부터'라는 격언이 사라질지 모른다. '지루한 스포츠'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전통을 포기하는 것이다. 세계야구의 추세에 맞춰 KBO리그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팬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늘어나는 경기시간, 사라진 완봉·완투

미국 스포츠매체 '디 애슬래틱'의 켄 로젠탈은 6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경기시간 단축을 위해 '투수가 한 번 등판하면 최소 세 타자는 상대해야 한다'는 규정을 선수노조에 제안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선수노조는 반대급부로 '내셔널리그에도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로젠탈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MLB에서는 수년째 경기당 등판 투수가 늘어나고 있다. 2014년 한 팀 평균 3.98명에서 2015년 4.11명~2016년 4.15명~2017년 4.22명~2018년 4.36명으로 꾸준한 상승세다. 선발투수를 제외하면 경기당 세 명의 불펜투수가 등판한 꼴이다. KBO리그도 마찬가지다. 2014년 4.28명~2015년 4.33명~2016년 4.45명~2017년 4.19명~2018년 4.35명으로 매년 경기당 한 팀 평균 등판투수가 4명을 훌쩍 넘었다.

'불펜야구'가 득세하면서 완봉과 완투는 자연스레 급감했다. 2014년 완투 118회, 완봉 65회를 기록했던 MLB는 지난해 42완투, 19완봉에 그쳤다. 5년새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5년 27완투, 12완봉이 나왔던 KBO리그도 지난해는 17완투, 4완봉에 머물렀다. 그 자리를 불펜투수가 메운다는 것은 곧 투수교체의 증가를 의미한다. 경기시간 증가는 당연한 결과다.

MLB의 평균 경기시간은 20세기까지 3시간의 벽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년을 살펴보면 2015년(2시간56분)을 제외하고 4년에 걸쳐 3시간을 넘겼다. 그나마 지난해 3시간00분으로 살짝 줄었지만, MLB 사무국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젊은층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2시간대 중반으로 접어들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취임 직후부터 경기시간 단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자동 고의4구 도입, 마운드 방문 제한 등 규제를 늘렸지만 실효는 없었다. '투수 등판 시 최소 세 타자를 상대하게 되면' 원손 스페셜리스트 등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앞선 시도들에 비해 훨씬 더 즉각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여겨진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전 국대 GK 김병지 "인생 2R 구단주 꿈꾼다" ▶6면

김승호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
신치용 선수촌장의 과제는?
▶8면

신치용

연일 논란…SBS 예능 총체적 위기 ▶13면

SBS '골목식당'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02558호(2018.06.12) 〈COM-2018-06-28146〉

"나이 들수록 암에 걸리기는 쉬운데 보험 가입은 힘들어지네요"

위암 재발확률 20.5% [서울 백병원2017] 대상: 1998~2002 위암수술환자 1,299명

암 발병률 급증 50세 이후 [국립암센터, 2015기준] 10만명 당 암발생률

일반인 대비, 고혈압 환자 전립선암 발병률 1.45배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종양학회 2017] 대상: 2006~2015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된 20세 이상 남자

"암을 한 번 앓고 나니까 더 불안해요"

"작은 병이 큰 병 될까봐 무서워요"

암보험 걱정!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Ⅲ(갱신형)이
답이다

암보험 가입하기 딱 좋은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오방난로 상담완료 시, 무료증정!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단,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초 1회보장 (가입 2년 이내 50%)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이므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가능함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AIA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